

## <교육과학기술부>

# 없다던 로스쿨 회의록, 존재 인정 학교 측 “회의록 은폐한 교과부 상대로 책임 물을 것”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제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누락된 회의록 추가 제출 명령’이 떨어져 본안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 관련 교과부가 제출한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회의록 중 13·14회 회의록이 누락돼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22일과 27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민감한 부분이기에 회의록은 있지만 녹취록이 없다”는 교과

부 담당 실무자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엇갈린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28일 행정법원에서 열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 제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교과부 측은 결국 “요약본은 있으나 회의록은 없다”는 해명으로 법원으로부터 ‘누락된 회의록 추가 제출 명령’을 받았다. 또한 학교 측의 요구대로 법교위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회의록이 추가 제출 문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평가항목별 점수란의 실명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학교 측 관계자는 “회의록 안의 실명이 공개되면 회의록 내용 중 제척사유가 되는 부분을 찾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13조 법교위 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사건 당사자가 그 사건과 관련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직무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은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 있어 경쟁에 참여한 대학의 교수가 법교위로 참여한 발언을 실명 회의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 참여한 법교위 13명 중 현직 법학 교수 4명은 위원장인 신인영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한인성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가 해당된다.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해당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심의에만 참여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척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명 공개된 회의록 안의 해당 법교위 4명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 없이 임한 사실은 곧 해당 회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회의가 무효면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또한 무효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우리대학은 9월 본인가까지 온 오프라인의 로스쿨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25일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 제 3차 변론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윤혜경 기자  
zenobia@dongguk.edu



“협상무효, 고시철회!” ...

지난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을지로입구역 앞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사진은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시민들이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수) yshera21@dongguk.edu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최우수 등급, 김소연 교수

### 새로움, 변화, 도전의 대명사

‘교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과연 어떻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김소연(의생명공학) 교수를 보면 우리 고정관념 속 교수님의 모습을 지워도 될 듯하다.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힘쓰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수도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는 김소연 교수.



으며, 2006년에는 질병진단을 위한 칩 물질을 개발해 외신저널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김 교수는 학과 이기주의의 풍토와 열악한 재정지원환경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험실 지원에 솔하게 일어나는 자리싸움과 지원금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고.

때문에 이번 환경부 최우수 등급 평가는 ‘상처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 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더욱 값진 기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생명공학도들이 이 분야에 꿈을 갖고 도전하다가도, 직업시장이 불투명해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김 교수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에 급급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라”며 “자신있게 꿈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부드러운 속에서도 책임감, 자부심으로 뚝뚝 뚫고 김소연 교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김 교수가 펼칠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NRL은 고분자 나노 포러스 집의 고유 기술을 화학인공물 집인 압타머에 적용, 다양한 질병진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개발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출원과 등록을 마쳤

(출) jongseo0722@dongguk.edu

## 2007년 결산액 2천 524억 여 원

### 이사회 기관별 결산 등 5개 안건 승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영배 스님)는 지난달 27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 239차 이사회를 열고 우리대학 2007년 결산액 2천 524억 2천만 원 승인을 비롯한 5개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2007년 각급

기관 결산(우리대학 2천 524억 2천 만원, 의료원 1천 556억 3천만 원) △교원 2명 면직, 1명 휴직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개정 및 정관 시행 세칙변경 △경주캠퍼스 기숙사 입찰 공고안 승인요청의 건 △일산불교병원 기체 연장의 건을 승인했다.

## ‘사막화 방지의 날’ 국제 심포지엄

### 정부·NGO·기업 등 참여 ... 산림청장 특강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산림청의 주최로 이달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110분 동안 문화관 4층 초저당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정부부처를 비롯해 학계, NGO, 기업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인사들의 발표와 토의를 진행되며, 산림청장의 특강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서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지정하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방지 관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홍보하는 자리다.

또한 사막화 관련 주제로 법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몽골 ‘그린벨트 사업’에 대해 상황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청이 주최

한다. 올해는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소장=강호덕·환경생태공학)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주관하게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과학대학 장 박정국(의생명공학)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5개의 주제로 발표 후, 토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발표주제는 우리대학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 강호덕 소장의 ‘사막화방지 수종선발 연구사업’과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박종호 과장의 ‘인도네시아 생태계 복원사업’ 외 5개로 국내외 관련자들이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후에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의가 끝난 후 별건으로 하영제 산림청장이 ‘산림행정 및 산림연구의 세계화’란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제1461호가 2008학년도 1학기 강강호입니다. 보내주시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462호는 2008년 9월 1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사업개발 및 기금조성 위한 직제개편

### 사업개발본부·대외협력단으로 확대 ... 본부장, 단장에 외부인사 영입

사업개발본부로 캠퍼스기획단이 흡수되고 대외협력단이 신설되는 등의 직제개편이 이뤄져 사업개발 및 기금조성에 있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전략예산팀(팀장=신기훈)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자로 사업개발본부에 있던 대외협력실을 대외협력단 대외협력실로, 사업개발본부는 사업개발실과 건설관리팀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대외협력실은 대외협력단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외협력력을 통한 기금조성에 더욱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개발본부에 해오던 기금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대외협력실에서 전담으로 맡아 투자전략에 대한 수립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협력단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조성된 기금을 펀드, 투자 상품 등을 통해 수익률 10%이상으로 내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임원끼리 만나 교류에 그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동창회

발을 통한 학교 사업개발이 한 부서에서 이뤄지면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교 측은 “현재 앞두고 있는 캠퍼스 개발 계획으로 진행 중인 △지하캠퍼스 △일산캠퍼스 △충무로 영상사업단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개발본부장과 대외협력단장을 외부에서 초빙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개발본부장의 경우 개발 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사로 오영교 총장이 지난 해 부터 물색해 오고 있었다. 또한 대외협력단장으로는 대외활동을 통해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적임자로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현재 여러 후보를 두고 모색 중이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이번 주 중으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iki26@dongguk.edu

## 김영배 명예교수, 일석국어학상 수상

### 비서울대 출신이론 이례적 선정

김영배 국문과 명예교수가 제 6회 일석국어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법인 일석학술재단(이사장=이교용)은 지난 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제 6회 일석국어학상에 국어학 연구에 공로가 많은 김영배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석국어학상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1945년부터 1961년 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던 김익이 회고선생의 생전의 연구업적으로 기리고, 국어학 연구에 크게 공헌한 국어학자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그동안 주로 서울대 출신 국어학자에게 수여되어온 관행에 비추어 불태 때우 이례적인 일로 학계에서 반이들이고 있다.

## 쓰촨성 이재민 성금 모금

### 쓰촨大 통해 기금 전달

중어중문학과(학과장=박영환)가 중국 쓰촨성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모금운동을 벌인다.

오는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모금은 우체국 012328-02-085106(예금주: 양청화)로 입금이 가능하며 중문과 사무실 접수도 가능하다. 모아진 성금은 우리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쓰촨대학의 구호계좌로 송금된다.

총대신문사 終値 ▲ 85.2

#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〇〇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그래픽기자, 웹미디어기자  
**접수기간** 5월 26일(월) ~ 6월 4일(수) 오후 5시 까지, 6시 면접  
**원서제출** 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대신문사 편집국  
**www.dgupress.com**에서 접수 가능

**문의** 본사 홈페이지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전화:**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

### 지면안내

**4면 문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빈철왕, 프레스슬러 윤강철(36) 씨를 만나다. 평소에는 책서비스 배달맨, 목요일 저녁 우리학교에서 레슬링을 강의하는 그를 만나봤다.

**5면 문화기획**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전제로 하는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지역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8면 기획**  
 오는 8월 시작되는 베이징 올림픽에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올림픽 취재단’이 파견된다.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운재용 부단장과 취재단원을 만났다.

# 메디클러스터, BT분야 전문 인재 양성대

<생명과학기술>

## 산-학-연 협력 통한 수익창출 ... 접근성 뛰어나 유치적합

우리대학이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동구 식사동 777번지 일대 102만㎡ 규모의 부지에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 지역에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유치 시 기대효과와 유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달 15일 경기도·고양시와의 MOU체결에서 고양시에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화전문대학원과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포함한 의생명과학캠퍼스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 유치시 기대효과

메디클러스터가 유치된 이후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생명과학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이다.

유치 시 메디클러스터는 10년간 정부로부터 5조원을 투자받는다. 이 자금은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등의 인프라

를 구축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유치된 연구 기업과 생명과학캠퍼스 구성원 간의 공동연구, 인턴십 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이론 교육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실습 교육 위주의 생명과학 분야 전문 인력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던 우리대학 일산불교병원도 새로운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메디클러스터 내에는 연구기관, 산업체 뿐 아니라 실버타운과 임상실험센터 등 종합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일산불교병원은 실버타운의 고정적 환자를 확보하고 임상실험체로부터의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이 메디클러스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 환자의 유치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유치 가능성

고양 메디클러스터는 수도권과 인천, 김포공항과 근접한 입지를 연구 기업과 생명과학캠퍼스 구성원 간의 공동연구, 인턴십 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이론 교육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실습 교육 위주의 생명과학 분야 전문 인력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양은 △동국대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건강보림공단병원 △명지병원 5개의 대학병원의 밀집으로 의료서비스 및 임상연구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반면 교육, 연구 분야의 경우 고양시 내 대학과 연구소 등이 유치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대학 생명과학캠퍼스가 이전함에 따라 교육, 연구 분야의 취약

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건물 신축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와 군부대의 협의가 이뤄져 고도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달 30일 백상승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메디클러스터 내 의화전문대학원 이전과 관련해 우리대학을 향의 방문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경주에 의과대학을 설립한 것은 지역 의료 인력배출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의과대학을 이전하는 것은 경주 시민을 기쁘고 우롱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기존 의과대학은 경주 캠퍼스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히고 “고양메디클러스터는 생명과학분야를 통한 산-학-연 협력이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gid1226@dongguk.edu



### 우리가 원하는 건 토론회 ...

입학정원조정안 설명회가 지난 달 29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 관계자와 일반학생들로 가득 채워졌다. 학생들은 이날 학교 측의 단순한 설명이 아닌 토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총장과의 대화를 더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중> wondergirls@dongguk.edu

## 입학정원조정안 설명회 ‘제자리 걸음’

### 서로의 입장만 주장 ... 학생들 ‘강경대응’ 뜻 밝혀

입학정원조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9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나 학교 측과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설명회는 문과대·사과대·이과대 학생회 측의 공개설명회 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학교 측은 오영교 총장, 한진수(회계학) 경영부총장,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이 참석했고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설명회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에 이어 학생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 총장은 “102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인 우리학교가 다 학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시행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입학

정원조정안을 학교 전체의 발전이란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주로 입학정원조정안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기초학문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재근(수학4) 군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오 총장은 “학생들에게 수업받기 좋은 환경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 답했다. 사회과학대학 이은지(사회4) 학생회장이 “기초학문을 경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기초학문도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CS광장, 총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학생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정원조정안 설명회는 약 3시간 여 가량 진행됐다. 그러나 설명회 장소가 협소해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 학생들의 절차와 예의를 무시한 발언태도를 보이자 오 총장이 학생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오 총장이 설명회 중간에 나가려 하자 학생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여 설명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희진(물리2) 양은 “장소가 비좁고, 학교 측의 발언이 너무 비논리적”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문과대 최재희(철학4) 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그쳤다”며 “이제는 강경한 대응책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중>

wondergirls@dongguk.edu

## 회전무대

### 우(雨)? 우(憂) ...

○ ... 우천시에는 강의실에 있을 때, 엉덩이를 잘 살피라는 공지 사항들이 뿔뿔이 났다.

무슨 말이고 하니, 비오는 날이면 우산에 묻은 비를 강의실 안에서 털고, 물이 묻은 우산을 의자에 올려 놓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제 기본적인 에티켓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그놈의 에티켓 부재 때문에 공지할 것도 참 많군”

### 가출도서신고

○ ... 중도 책들은 숨바꼭질을 좋아한다는데.

도서검색을 해서 책을 찾으려 가니 제자리에 없고 다른 칸에 있다고.

학생들이 혼자 빌려가려고 책을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기거나,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꽂아 놓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리시스템의 강화로 학생들이 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회전무대자 왓 “꼭꼭 숨겨는 책을 누가 와서 보나요”

### 복사기는 파업중?

○ ... 도서관 복사기로 복사하면 복사하는 이의 속 타는 애간장만 복사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이전에 복사한 학생이 복사기를 고장 내고 사라졌어도 중도 측 누구 하나 들어다보는 이가 없다고.

돈 주고 복사카드를 사서 복사하는 일인 만큼, 도서관 측의 복사기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중도 복사기만 안 돌리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국가 1위 돼?”

### 침묵 속 공감 형성

○ ... 우리학교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존재한다면.

무슨 말이고 하니, CS경영팀이 학생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민원에 비해 부진하다고.

학생들은 고객으로 대접받기 위해 불만 토로와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그 불만을 학교 측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회전 무대자 왓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동약로에서

## ‘통제’ 보다 ‘지원서비스’ 여야

학교 측은 학기 초 중앙기구 선거 과정에서 중선관위 구성의 문제를 들며 선거인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월 30일자 동대신문의 ‘눈금 없는자’라는 칼럼을 통해 중선관위 구성을 지지하기 전에 학생회비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최근 학생서비스팀은 “학생회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동대신문의 지적과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단계는 해당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생회비 납부 항목을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생서비스팀 측은 학생회비 감사에 대한 당부나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납부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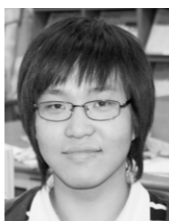
힌 것이다.

학생서비스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단과대 대의원장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총대의원회 비대위원장을 맡고있는 이해원(영화영상4) 양은 “현행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연회 등 중앙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운영비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며 “단과대 학생들이 학생회비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단과대 뿐 아니라 중앙기구의 학생회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대 대의원장 권기홍(법학2) 군은 “감사도 학생 자치활동 중 하나인데 학생자치활동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학교 측이 학생회비를 끊으려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서비스팀은 명칭 그대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서비스’

를 담당하는 곳이다. 즉 보다 나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배포방식을 문제 삼아 고지서 고지서를 등록금 고지서에서 삭제한 것이 이번 학생회비 고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과 적절한 개선책에 대해 토론했고 모색하는 열린 학생서비스 행정이 필요할 때다.



정동훈 기자

gid1226@dongguk.edu



### 저렴하게 만나요 ...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화공생명공학)이 KG블플러스와 제휴해 오는 5일까지 휴미·교양서 중심의 도서를 특별한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상록원 입구에서 진행되며, 신간도서와 퍼즐은 20%, 일반도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중> jongseo0722@dongguk.edu

### 좋은교사 되기 대회

#### 오는 4일 학림관서 개최

사범대(학장=김혜숙·국어교육)가 주관하는 좋은 교사 되기 경연대회가 오는 4일 학림관 J3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대회 취지에 대해 김혜숙(국어교육) 학장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높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길러지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범대 4명과 비사범대 2팀 총 6팀이 참가, 각 팀당 발표시간은 20분씩 주어진다.

심사는 △내용 조직의 명료성 △언어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 △청중에 대한 배려와 말하는 태도 △반언어적 요소인 성량·속도·발

음 △비언어적 요소인 청중과의 눈맞춤·자세·웃차림·몸동작 등으로 세밀하게 평가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교내 교수진들 4명과 현직 교사 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좋은 교사 되기 경연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상금도 함께 주어진다.

### 제 3세계 연수생 대학도우미 신청접수는 오는 4일까지

한국어교육센터(센터장=박광현·국어국문학)에서는 제3세계 연수생과 함께 하는 1:1 대화도우미를 모집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학번과 성명 지원동기를 ken27@dongguk.edu로 제출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제 3세계 문화예술인 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16일부터 접수 받아

한국어교육센터(센터장=박광현·국어국문학)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한국어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자 또는 대학 3학년 재학 이상이거나 대학 부설 전·현직 한국어교육기관 강사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춘 외국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어 구조에 관한 지식 △언어의 일반 원리 및 응용언어학에 관한 지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접근 및 실습이다.

## 두리터에 고급학생식당 첫 선

### 서희건설 10억 기부 ... ‘서희라운지’ 오픈

문화관과 학술관 사이의 푸드코트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2일) 첫 영업을 시작한다.

사업개발본부는 문화관 푸드코트의 공사를 2월 6일부터 시작해 지난달 26일 공사를 끝마쳤으며, 중구경 준공 허가까지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문화관 푸드코트의 정식명칭은 ‘서희라운지’이며, 서희라운지 내에는 동원 홀푸드가 ‘더 키친’이라는 브랜드의 식당을 운영한다. ‘더 키친’에서는 스프, 파스타, 피자, 햄버거, 치킨 및 음료 등을 판매한다. 가격은 △파스타=4천 8백 원 ~6천 4백 원 △샐러드=4천 원 대 △피자=만 원 대 △치킨=4천 2백 원 △음료=2천 원 ~4천 원이다. 식당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또한 문화관과 학술관 사이의 두리터 공간에는 ‘Sand Presso’라는 커피 및 샌드위치 가게가 들어섰다.

이번 푸드코트 공사는 종합건설회사 서희건설이 우리학교에 총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시행되었다. 서희건설 이병관 회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작은 힘

이나마 보태고 싶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동국대가 추진 중인 108프로젝트 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서희라운지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불편을 감안해 학술관 지하 1층 대학원 세미나실, 대학원 휴게실 등 대체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서희건설이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기증식이 지난 달 30일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기증식 후에는 서희라운지로 이동해 개점 기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서희건설 이병관 회장,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 동원 홀푸드 김재선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학교에서는 오영교 총장, 한진수 경영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개발실 김규환 과장은 “서희라운지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만큼,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

lan@dongguk.edu

###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 오는 4일 리더십 특강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초청 강연회가 ‘꿈과 열정으로 신명나게 살자’라는 주제로 4일 열린다.

이는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가 주최하는 제3회 리더십 특강으로 우리학교 학생들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다.

### 백상농구대회 29일 성료

#### 체교과 ‘재미삼아’ 우승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제19회 백상농구대회(주최=아마추어 농구회)가 2주간의 열띤 경쟁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리 및 학과의 명예를 걸고 참여한 22팀의 참가팀 중 법과대학의 ‘GSC’ 체육교육과 ‘재미삼아’ 팀이 결승전을 치렀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응원 속에서 체육교육과 ‘재미삼아’ 팀이 73대 6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농구 코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아마추어 농구 동아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3차 강의평가 9~27일

#### 불참시 성적조회 불가

이번 학기 3차 강의평가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적 공시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서 이번 학기 수강과목 성적을 조회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6일까지 실시된 2차 강의평가 참여율은 59%로, 1차 강의평가 48.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20.4% △2학년=40.1% △3학년=45.5% △4학년=44.8%이다.

### 교수·학생 고객만족도 조사

#### 15일까지 ... 경품도 증정

CS경영팀(팀장=박서진)이 학생과 교수를 상대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학생의 경우 △학과 △단과대 학사운영실 △경험한 행정부서를 평가하게 되고 교수는 △단과대 학사운영실 △경험한 행정부서를 평가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디지털카메라, 최신전자사전, MP3 등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 CS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전화연결음 서비스 실시

#### 학교 홍보문구 내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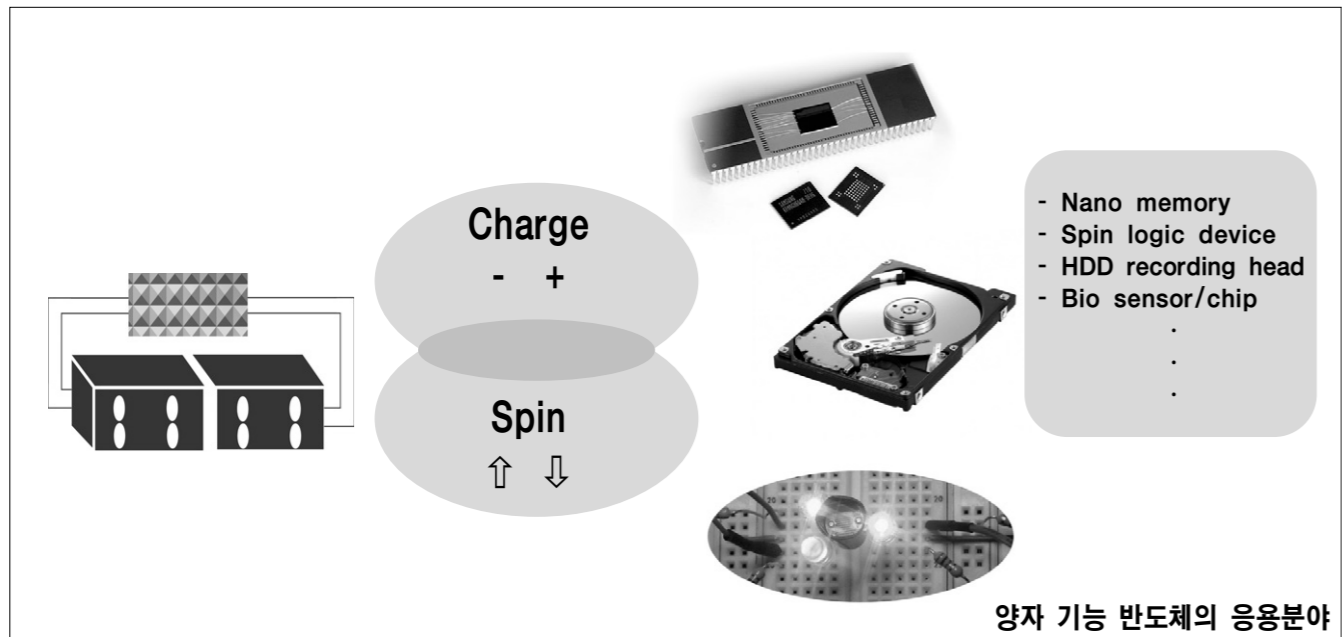
정보관리실 정보운영팀(팀장=김재선)은 이번주 중으로 전화연결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할 전화연결음 서비스는 학교 외부에서 내부로 걸려오는 전화에 쓰이게 된다. 외부에서 학교 행정부서로 전화를 할 경우 학교에 대한 홍보문구를 음성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전화연결음 서비스는 300회선 이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서에 설치된다.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의 지평

# ‘양자 기능 반도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 머지 않은 미래에 정보처리능력 포화 ...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



양자 기능 반도체는 우리 주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도체의 새로운 모습이다. 양자 기능 반도체를 설명하기 앞서서, 현재의 반도체의 발전과정을 짚어보며 이야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많은 중요한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반도체 연구가 문명에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의 그 무엇보다도 영향이 크다.

더욱이 이와 같은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조절하는 소자를 통해서 정보의 처리 및 저장, 그리고 정보의 디스플레이 등 현재의 문명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학문적으로 반도체 연구는 1947년 벨 연구소의 연구원에 의해 획기적으로 연구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6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의 장점은 그 당시 사용되어오던 진공관보다 크기와 소모전력 등이 작고 사용이 간단하다는 점으로 진공관 역할의 대체가 가능하였다. 그 후 반도체 소자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중에 하나인 트랜지스터의 기능은 정보의 저장과 처리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심은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이는 문제이다.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일정 면적에 트랜지스터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한정된 면적에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적도가 높아야만 한다. 이렇게 집적된 트랜지스터 수를 확장시키는 기술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그 지표로서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예견한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소위 ‘무어의 법칙’을 1965년에 발표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는 이 ‘무어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1나나 나나 반도체 발전 속도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황의 법칙’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은 2002년 국제반도체학회(ISSC)에서, 메모리의 경우 집적도의 속도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소위 ‘메모리 신성장론’인 ‘황의 법칙’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법칙이 머지않아 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는 우선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여야하지만 트랜지스터의 구성요소 중 중요한 절연체역할을 하는 산화물 층은 어느 한계 두께 이하가 되면 그 역할인 전류를 막지 못해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산술적으로도 더 이상 얇아질 수 없는 원자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머지않은 미래에 ‘황의 법칙’과 ‘무어의 법칙’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현재 반도체 연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양자 기능 반도체 연구이다.

양자 기능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의 양자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 및 소자 물리연구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금까지의 ‘0’과 ‘1’의 Binary-bit을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기존 반도체소자(기억 및 논리소자)는 지속되는 고집적화의 결과로 소자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 머지 않은 장래에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축

소하는 데에는 물리적,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의 전하뿐만 아니라 방향을 조절한 물리상태와 같은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소위 방향조 상태로써 여기서는 전자의 Spin과 분자의 Dipole moment의 방향을 조절하고자 함) Binary-bit이 아닌 Multinary-bit을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 소자인 양자 기능 반도체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반도체 물성인 방향조 절(Spin과 Dipole)상태의 결과들을 새로운 양자구조 현상과 접목시키면 새로운 개념의 Multinary-bit 반도체 소자 창출이 가능하다.

200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결과에서 현재의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해결할 새로운 양자 기능 반도체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알베르 페르(Albert Fert)와 독일의 페터 그뤼넬베르크(Peter Grunberg)가 공동 선정됐다. 이들의 나노기술 및 거대자기저항(GMR) 발견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페르와 그뤼넬베르크가 발견한 기술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자료를 저장하고, 드라이브로부터 자료를 읽어내는데 활용되며, 최근 들어 하드디스크의 소형화와 대용량(수백 Gigabyte급)을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나노기술은 100만분의 1을 뜻하는 마이크로를 넘어서는 미세한 기술로 1981년 스위스 IBM 연구소에서 원자와 원자의 결합상태를 볼 수 있는 주사형 터널링현미경(STM)을 개발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며, GMR연구는 자계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저항이 크게 변하는 GMR 특성으로 고감도 HDD용 헤드로 응용가능한 연구이다. 이 헤드는 코발트와 철의 합금을 이용한 박막 소자의 강

한 자기저항 효과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고 저장한다. 즉 지금까지의 전자의 전하만을 이용한 소자 연구에서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물리현상을 이용한 응용 연구가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현상을 이용한 양자 기능 반도체를 활용하면 같은 집적도에서도 몇 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자 기능 반도체 소자 구현은 양자컴퓨팅으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팅이란 양자역학계의 특징인 불확정성, 중첩, 얽힘, 간섭 등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양자적 특성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고전계가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적극 이용하여 도정이 전혀 불가능한 정보전달이라든지, 고전적인 컴퓨터,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의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양자 기능 반도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개념의 반도체 기술로 인류의 꿈인 인공두뇌 구현이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미래의 핵심연구는 반도체 연구, NT가 결합된 융합연구로 발전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반도체 재료 및 소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될 것이다.

전희창  
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 조교수

‘우수연구센터’이며 ‘도약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강태원(물리학) 교수

## 자연을 창조하는 열정적 개척자

강태원(물리학)교수의 ‘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우수연구센터(SRC)에 선정되어 1999년부터 올해 2월까지 9년간 연간 10억씩 연구비를 지원받아왔다.

SRC는 한국과학재단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내 대학의 잠재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는 반도체의 한계를 디자인을 통해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2진법 체계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한 반도체의 속도와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n진법 체계’로 새롭게 설계한 것을 말한다.

연구와 관련해 강 교수는 “자연 중심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를 보인다”며 “현재 컴퓨터로는 10여년 내에 포화상태가 되어 정보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의 연구는 실용화 가능성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돼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강태원 교수가 반도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부시절. 당시 지도교수, 최희규 교수의 영향이 컸다. 강 교수는 “최 교수님 수업의 시험을 밤새 준비하며 현재의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덧붙이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편 강 교수팀은 3년마다 평가하는 SRC에서 2회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처음 A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다음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연속으로 A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강 교수팀은 지난 5월 한국과학재단에서 선정하는 ‘도약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국과학재단은 SRC를 비롯한 국제지원연구의 평가를 하고



상위 20%를 선정해 5년 간 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강태원 교수는 “경쟁 연구소들은 대부분 카이스트나 서울대 등 국내 유수의 최고 연구진”이라며 “이 중 뛰어난 성과를 거둔 팀만이 이 사업에 선정된다”며 도약연구지원사업 선정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강태원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과정을 모두 끝마쳤다. “해의 유수의 대학이나 국내의 소위 명문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죠. 동국대도 그만큼 잠재 가능성이 많고 그 실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해요”라며 학교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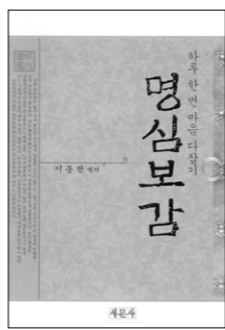
“자연현상을 인간에게 이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강 교수에게서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호)

blueeagle@dongguk.edu

## 새 책 소개

### 마음을 밝혀주는 책, 이종찬 명예교수의 ‘명심보감’



▲명심보감-하루 한 번 마음을 다잡기, 새문사, 이종찬 역저, 347쪽, 1만 7천원.

불교에서의 ‘마음’은 실체가 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로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학교 이종찬(국어국문학) 명예교수의 ‘명심보감-하루 한 번 마음 다잡기’는 마음공부하기 좋은 책이다.

‘착한 일을 하는 이는 하늘이 보응하되 복으로써 하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는 하늘이 보응하되 재앙으로써 한다’는 말로 계선편을 시작한다. ‘명심보감’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길을 찾

으라’고 조언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른 명심보감과는 달리 한 구절, 구절마다 저자가 역주와 예를 달아 놓아 처음 보는 이도 쉽게 볼 수 있게 풀이한 것이다. 특히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쉽게 풀이한 점에서 이 교수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공부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책을 읽는 사람은 한번의 독서로 책을 접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다르게 저자는 삶에서 터득한 방법을 책 한권에 성실하게 정리해 놓는다. 책에서는 저자의 가치관부터 때 묻은 습관까지 알 수 있다. 이 교수의 명심보감은 이 교수의 마음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사회교육원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상담] 학습관 1층 사회교육원  
TEL : 2260-3728~9 FAX : 2260-3730

## 2008년 2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 ■ 금융전문컨설턴트과정

책임교수 (진)신영준권 상무 흥준기 박사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내자본시장이 통합화가 급진전 되면서 금융의 고유 업무부분이 통제합림으로 인한 금융전문컨설턴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향후 금융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자산관리 및 금융자문을 위해서 금융관련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필요성에 따라 본 과정을 개설함.

### ■ 부동산전문가과정

책임교수 (현)신한영 P8팀장 고준석박사

부동산정책 및 시장을 조망하여 이를 실천투자자에 접목시켜, 부동산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공부 함.

### ■ 불교미술문화재 연구반

책임교수 현 동국대미술대학 김경곤 교수

불교문화재에 대한 이론강좌를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불교건축 장르로 구분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경의를 실시하여 불교미술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며, 불교미술문화재 현장답사와 불화실습으로 상반기에는 불상복원도, 하반기에는 삼존도를 직접 조성한다.

### ■ 커피비즈니스과정 책임교수 한정환

외식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예비 창업자, 바리스타와 커피하우스를 창업하실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커피 강좌는 커피하우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하여 커피하우스 또는 유사 업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강좌를 수료하면 한국커피교육협회 바리스타 2급 인증 시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 초콜릿 전문 창업 과정 책임교수 박영도

초콜릿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를 알고 시장변화를 선도하여 Blue Ocean의 개척 및 선점을 위해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포토이미지초콜릿의 제조와 웰빙 고급초콜릿의 제작방법을 알고 사업성으로 연결하여 창업할 수 있다.

## 국제비즈니스맨을 위한 무역영어마스터 과정 (주중, 주말반)

무역 거래 영문 Letter 작성과 계약 성시와 관련한 영어회화를 단기간에 Master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과정

### ■ 교육내용

| 분 아                      | 내 용   |
|--------------------------|---|
| Writing 분야 (무역서식작성)      | 1. Business Letter에 쓰이는 무역용어<br>2. 인코텀즈 및 ISBP 해설<br>3. 국제 Business Letter 작성 훈련(Circular Letter, Inquiry, Business Proposal Offer Sheet, Contract, Payment, Claim 등) |
| Conversation 분야 (무역영어회화) | 1. 글로벌에티켓 해설 및 일반 회화 테크닉 훈련<br>2. 회사소개 및 상품 소개<br>3. 무역계약 무역상담 요령(품질,수량,가격, 결제, 인도방식, 보험 등)   |

### ■ 교육기간

<주중반> ① 1학기 15주 주당 3시간 총 45 시간 - 매주 수요일 19:00 ~ 22:00  
<주말반> ② 1학기 15주 주당 3시간 총 45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 ~ 13:00

### ■ 교육장소

동국대 사회교육원 강의실

### ■ 교육대상

무역 분야 진출 희망 재학생, 무역회사 간부 및 실무자

### ■ 담당교수

현재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부교수이며, 세계 47개국 100개 도시 상대 무역을 한 국제비즈니스 전문가.

## TESOL 자격증과정 여름방학특강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어 전문 강사 양성 과정 TESOL Certificate 과정

■ 개설과정: TESOL Certificate 과정 <Intensive 8주 과정>

### ■ 강의시간표

| 구 분 | 강의기간       | 강의요일         | 강의시간        | 총 Class   |
|-----|------------|--------------|-------------|-----------|
| A반  | 7/7 ~ 8/26 | 매주 월, 화요일    | 10:00-18:00 | 120 Class |
| B반  | 7/2 ~ 8/27 | 매주 수, 목, 금요일 | 9:00-14:00  | 120 Class |

### ■ 지원자격

- 영어전문교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영어교육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분
- 영어전문학원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
- 전, 현직 초, 중, 고 영어교사
- 영어교육 전공하시는 분

### ■ 예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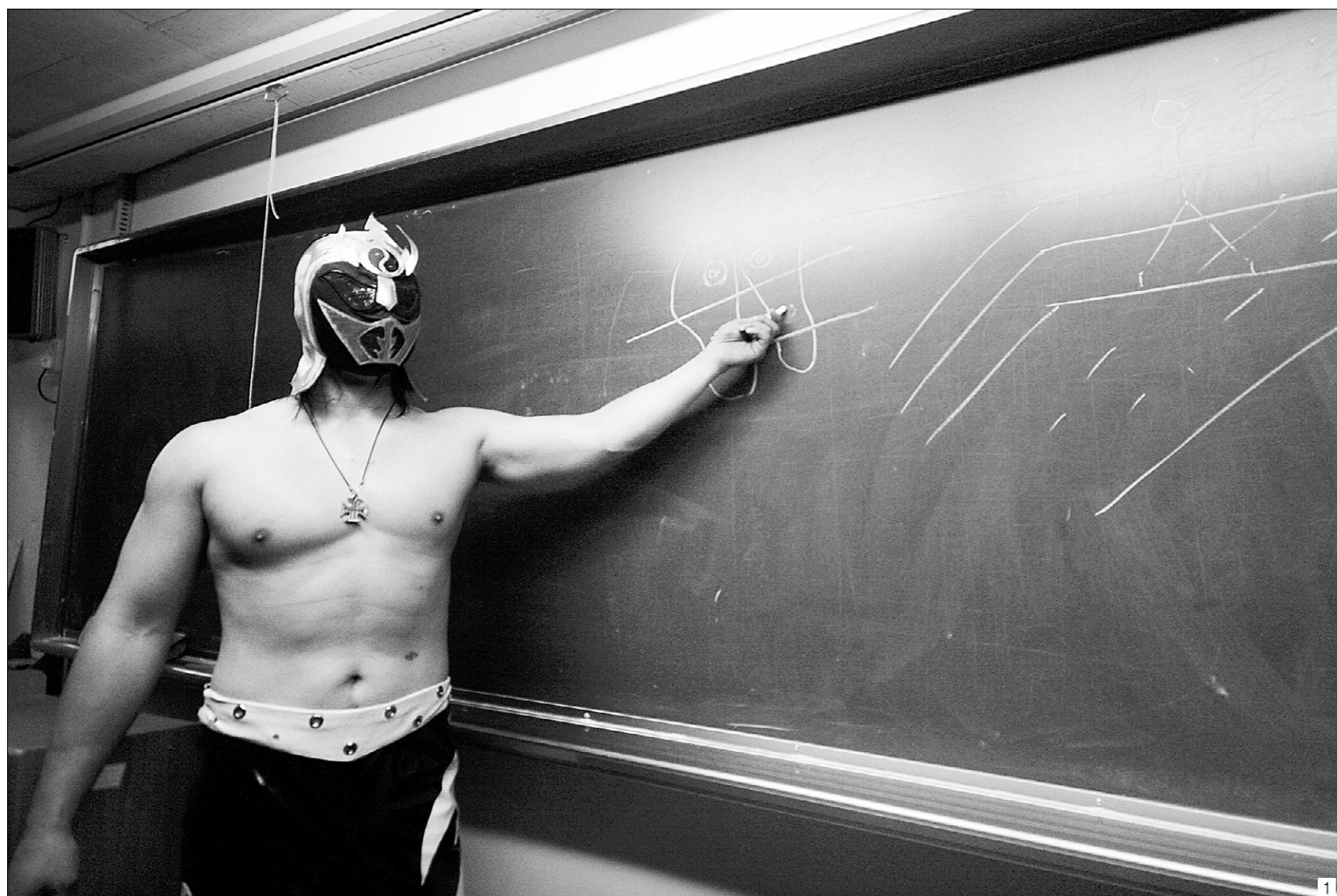
- 자격증 수여 : 미국 샌버나디노 소재 California State University's Certificate (수료조건 : 평균성적 70점 이상, 출석율 85%)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미국 현지 USB 연수 시 연수정보제공
- 수료 후 기업체 강사, 유명학원, 대학강사로 활동 지원.
- 워크샵 및 정규직 취업지원 지원

■ 모집인원: 각 Class별 선착순 20명(별도 면접을 통해 선발함)

■ 모집기간: 2008. 6. 2(월) ~ 6. 27(금)

### ■ 접수문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2260-3728
- 타입스미디어 : 1588-5340



1. 강단 위에서 강의하는 윤 선수  
2. 경기 직전 각오를 다지는 모습  
3. 작년 대회에서의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다.  
4. 나무에 고무줄을 둘러 기초훈련을 하는 모습  
5.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다

사회교육원 강의 시작한 이 시대의 반칙왕 윤강철 씨

# 삭막한 사회를 메치고 아름다운 반칙으로 강단에 서다

"Let's go 강철, Let's go 아이언맨" 빠른 비트의 음악이 깔리고 링 위에서 불꽃이 '팍' 튼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 '아이언맨' 윤강철(35) 선수가 등장한다. 링 위에 올라 두르고 있던 망토를 벗어 관중석을 향해 던진 후, 링 위로 날아 오른다. 공중으로 도약해 두 바퀴를 단숨에 획 돌아 관중들을 더욱 큰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링 위에서는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는 레슬링 선수로, 평소에는 퀵서비스 배달맨으로, 또한 목요일 저녁이면 우리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프로레슬링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화려한 이력을 가진 프로레슬러 윤강철씨를 만나봤다. 링 밖에서 만난 윤 선수는 온몸 가득히 땀 땀, 먼지 잔뜩 묻은 검은 손까지 영락없는 퀵서비스 배달맨이다. ○○산업개발이라고 쓰인 하얀 티와 갈색 빨데 안경을 쓰고 나타난 그는 옷 안에 가려진 근육이 아니면 프로레슬러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할 듯하

다. **현실을 넘어 꿈을 이룬다**  
"어린시절부터 김일 선생님의 경기, 미국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자랐어요. 가슴 한편에 항상 프로레슬러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후에 사회생활하면서 꿈은 꿈으로 가슴 한쪽에 조용히 접고, 직업군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뒤늦게 동명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진학해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레슬링만으로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었다. 비인기 종목이라 수요가 많지 않아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것이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처음부터 퀵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 체육관이나 헬스클럽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쉽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12시간씩 교대근무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하다 말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없고, 퀵 서비스 일한 것도 나름 연구한 겁니다. 중간중간 대기시간에 운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5시에서 일어나 동네 주변을 뛰고 기초체력 단련을 한다. 계속 운동을 하다가 일이 들어 오면 삼각김밥이나

빵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일을 하러 나간다. 대기 시간에 중간에 나무나 전봇대에 고무줄을 매달아 당기고, 팔굽혀 펴기 하고 발차기 등 틈틈이 연습한다. 새벽에 자다가도 일이 들어 올 때는 일하러 나간다고 한다. 일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항상 졸려요. 체력도 달리고, 땀을 때리면서 잠을 깰려고 노력하는데 쏟아지는 잠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졸려 죽겠네요" 라고 말하며 졸린 눈을 비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밥도 한끼도 못 먹었다는 윤 선수. "농수산시장에서 바나나랑 토마토 산 걸 차에 실어 놓긴 했는데 먹질 못했네요. 잘 못 먹어 힘들어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몸 관리할 여건이 안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일합니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죠"

**레슬링, 그 참을 수 없는 유혹**  
프로레슬링은 가장 화려하고 격렬하며 통쾌한 스포츠 드라마이다. 정교하게 설계된 캐릭터와 스토리, 화려한 연출, 빠르고 날렵한 공중기승 위주의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압도한다. 그의 캐릭터에 입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딴 '아이언맨'이다. 주인공과 악역을 넘나들면서 볼거리를 가능케 하는 기교를 선보인다. 공중에서 몇바퀴 도는 것은 기본이고, 지난 레슬링 대회에서는 두꺼운 야구방망이

여러 개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는 파워풀한 모습과 함께 멕시코 스타일을 살린 화려한 공중기승을 구사한다. 연신 졸린 눈을 비비던 그가 레슬링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한다. "나를 향해 환호하는 관중 속에서 모든 눈이 나를 쳐다보고 주시하고, 위에서 터져 나오는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춥니다. 밖에선 비록 힘들게 일하는 퀵서비스 직원이지만 그 순간은 그들에게 난 영웅이고 링위의 또 다른 나를 느낍니다. 굉장한 열기가 저를 잠식하죠." 배고픈 선수생활에 포기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을 것 같은데,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는다. "한번 결심한 꿈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밀고 나가야죠. 끝까지 우리 나라에 프로레슬링 하시는 훌륭한 분이 연세가 많고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제일 젊은데 저마저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의 영광을 위해**  
이제 그는 프로레슬링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우리학교 사회교육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레슬링엔터테이너 양성코스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은 연기적 요소는 많이 배제해 왔는데, 이번에 동국대

학교에서 연기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다. 미국 프로레슬링의 화려한 모습과 결합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1기 수강생들을 바탕으로 프로레슬링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자, 프로레슬링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1기를 시작으로 2, 3기까지 꾸준히 양성하면 프로레슬링에 젊은피가 수혈될 것으로 봅니다. 그 길을 제가 닦는 거죠. 그렇게 되면 레슬링이보다 발전할 겁니다." 반칙이 난무하는 삭막한 사회에서 프로레슬링은 아름다운 반칙이 허용되는 곳이다. 프로레슬링의 반칙은 경기의 흐름을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키 1미터 70센티 짜리 단신인 2미터 넘는 거인을 기를 걸어 넘어뜨려 이기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현실 상황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프로레슬러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는 "강자가 약자의 기술을 받아 넘어가 줄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반칙입니다"라며 "이것이 프로레슬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말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꿰뚫어 이겨나가는 외로운 이 시대의 반칙왕에게 조용한 박수를 보낸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사진 = 고우석 객원기자

### 교원 연수 프로그램 안내

**1. 연수기간 및 프로그램**

| 과정명                 | 기수  | 기간 및 시간  | 연수인원 |
|---------------------|-----|--|------|
| 통합 교과로 본 삶쓰기 논술 교육  | 제1기 | 2008. 8. 4 ~ 8. 6. (매일 13:00 ~ 18:00, 1일 5시간, 3일간)   | 40명  |
|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과 웰빙식 생활 | 제1기 | 2008. 7. 28 ~ 7. 30. (매일 09:30 ~ 16:30, 1일 6시간, 3일간) | 30명  |

**2. 연수 총별**  
직무연수(15시간, 성적산출 안함)

**3. 연수 장소**  
서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

**4. 연수 대상**  
전국 초·중등 교원

**5. 연수 경비(1인당 자기 부담액)**  
(1) 통합 교과로 본 삶쓰기 논술 교육 : 32,500원/명  
(2)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과 웰빙식 생활 : 50,000원/명

**6. 추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edu.dongguk.edu>에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된 의사사항은 이메일 ([uiseung@hanmail.net](mailto:uiseung@hanmail.net)) 또는 전화(2260-3112) 로 문의의 요망

**사범대학**

### 명찰 성지순례 안내

정각원에서는 건학이념 구현 및 다양한 신행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찰 성지 순례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정 : 2008. 6. 21(토) 08:00 ~ 19:30**  
\* 도착 시간은 도로 교통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순례 시찰 :** 두타산 삼화사(강원도 동해)

**3. 인솔 교수 :** 예술대학 김강준 교수(문화재 전문위원)

**4. 참가비 :** 금삼만원 (₩30,000)

**5. 참가자 정원 :** 70명 선착순 마감  
\* 정각원 신도회에 가입하신 분을 우선 접수합니다.

■ 성지 순례 일정표

| 일 자        | 시 간           | 내 용  |
|------------|---------------|--|
| 6월 21일 (토) | 08:00까지       | 정각원 병당 앞 집결  |
|            | 08:00 - 08:10 | 차량 탑승 및 출발   |
|            | 08:10 - 11:30 | 차량 이동 및 삼화사 도착                                     |
|            | 11:30 - 12:30 | 삼화사 참배 및 문화재 설명                                    |
|            | 12:30 - 13:00 | 점심 공양  |
|            | 13:00 - 14:00 | 경내 개별 참배 기도  |
|            | 14:00 - 14:30 | 삼화사 → 천곡동굴 이동                                      |
|            | 14:30 - 15:30 | 천곡동굴 관람<br>(4~5의 년 전에 생성된 총길이 1,400m의 석회암 수층 천연동굴) |
|            | 15:30 - 19:30 | 천곡동굴 → 서울 이동                                       |
|            |               | 19:30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각원 홈페이지(jeonggak.dongguk.ed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각원**

### 해외 성지순례 참가 안내

블제자로서의 신앙심 고취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국 불교 성지 순례를 병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일정 : 2008. 6. 29(일) ~ 7. 4(금) / 5박 6일**

**2. 순례지 :** 중국(대동, 오대산, 석가장 등)

**3. 지도법사 :** 종호 스님(동국대학교 정각원장)

**4. 참가비 :** 추후 확정 / 약 ₩1,100,000 내외

**5. 접수안내 :** 참가 희망자께서는 2008. 6. 7(토)까지 '참가 신청서' 및 '여권 사본 1부'를 정각원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정각원 사무실 ☎2260-3016,7

■ 일 정 표

| 일 자             | 지 역     | 주요 일정 내용  |
|-----------------|---------|---|
| 제1일<br>6월29일(일) | 부 경     | 07:45 인천공항 집결 / 09:45 출발 예정 / 10:45 북경공항 도착 / 만리장성 관광, 대동으로 이동  |
| 제2일<br>6월30일(월) | 대 동 오대산 |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불어시대 5만여 불상이 조성된 운경석굴 / 오금시대의 고찰 화엄사 / 부와 황산 금룡제국 임박에 위치한 신비의 현공사 / 중국 최고의 5층 목탑인 운현탑 참배 순례                               |
| 제3일<br>7월1일(화)  | 오대산     | 신라 자장율사가 무수보살을 권견한 중대 등정 / 불공상징이 건립된 당대 국찰 금강사 / 2천년 역사의 현종사 /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 영취봉과 타랫 황모파의 고찰 보살정 / 오대를 관전하는 대라정 / 메밀로 조성된 문수보살을 모신 수상사당 |
| 제4일<br>7월2일(수)  | 오대산 석가장 | 일주문이 아름다운 용원사 / 오대산 출발 석가장 도착 / 조주스님의 백발선사 참배   |
| 제5일<br>7월3일(목)  | 석가장     | 임제스님의 입제사 / 국보급 사찰인 용흥사 참배 후 북경 도착  |
| 제6일<br>7월4일(금)  | 부 경     | 역대 황제의 자금성 / 천안문광장 등 관광 / 15:20 북경공항 출발 / 15:20 인천공항 도착   |

\* 참가 인원 확정 후 사전 모임을 통해, 기타 세부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각원 홈페이지(jeonggak.dongguk.ed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中國 쓰촨(四川)지역지진과 관련해 모금행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2일, 초강력 8.0의 지진이 중국四川省복부 원한(汶川)지역을 강타하여 현재까지(5월20일) 공식 집계에 따르면 34,073명이 사망하였고, 245,10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무려 10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상자 및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미얀마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을 예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올림픽 성화 봉송도 잠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그 옛날 중국의 삼국시대, 우리가 제갈량의 도움으로 촉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중의 하나인 四川大學은 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2005년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매년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을 서로 파견하고 있으며, 동시에 1년에 한 차례씩 양교에서 우수한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상호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해오는 등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악의 지진으로 사천대학교와 그 주변지역이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지속되는 여진과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최악의 여건속에 긴급하게 원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저희 중어중문학과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가족피해, 주택붕괴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기시설, 도로, 통신시설의 붕괴 등으로 피해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구호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학생들과 중고등학교학생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매달린 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도움을 기다리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련학생들과 수만,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을 위해 학과구성원과 재학생, 졸업생 및 중국 파촉(巴蜀)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금은 반드시 사천대학의 공식 구호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금기간:** 2008년 6월 5일  
**후원 계좌번호:** 우체국 012328-02-085106  
**예금주:** 양정화(중어중문학과 조교)  
학과사무실로도 성금접수가 가능합니다.  
연락처 학과사무실: 2260-8711 / 2260-3836

**중어중문학과**

문화 예술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

# 공급자 위주서 향유자 중심 교육으로

## 정부의 전폭지원 ... 다양한 계층, 지역으로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 예술은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물과 공기처럼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어 그 존재감이 다소 약하기도 하다. 공연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당장에 생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보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웬 호사나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문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개인의 생활에서든 정책에서든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곤 한다. 특히 숨 가쁜 개발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입시나 취업 전쟁에 치여 있는 젊은 세대 모두에게 문화예술이란 늘 요원한 것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좋은 관객이 길러지는 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우리는 그동안 문화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기초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소 공급자 위주의 정책적 환경에서 살아왔다. 즉 전문 예술가를 길러내고, 문화시설을 짓고,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기능적 교육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향유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단순한 소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전제로 하는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최근 많은 문화단체나 교육기관들이 저마다의 전문성을 내세워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내용도 취미 생활 식 감성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외에도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지역과 같은 소외 대상이나 아동복지 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이른바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가 새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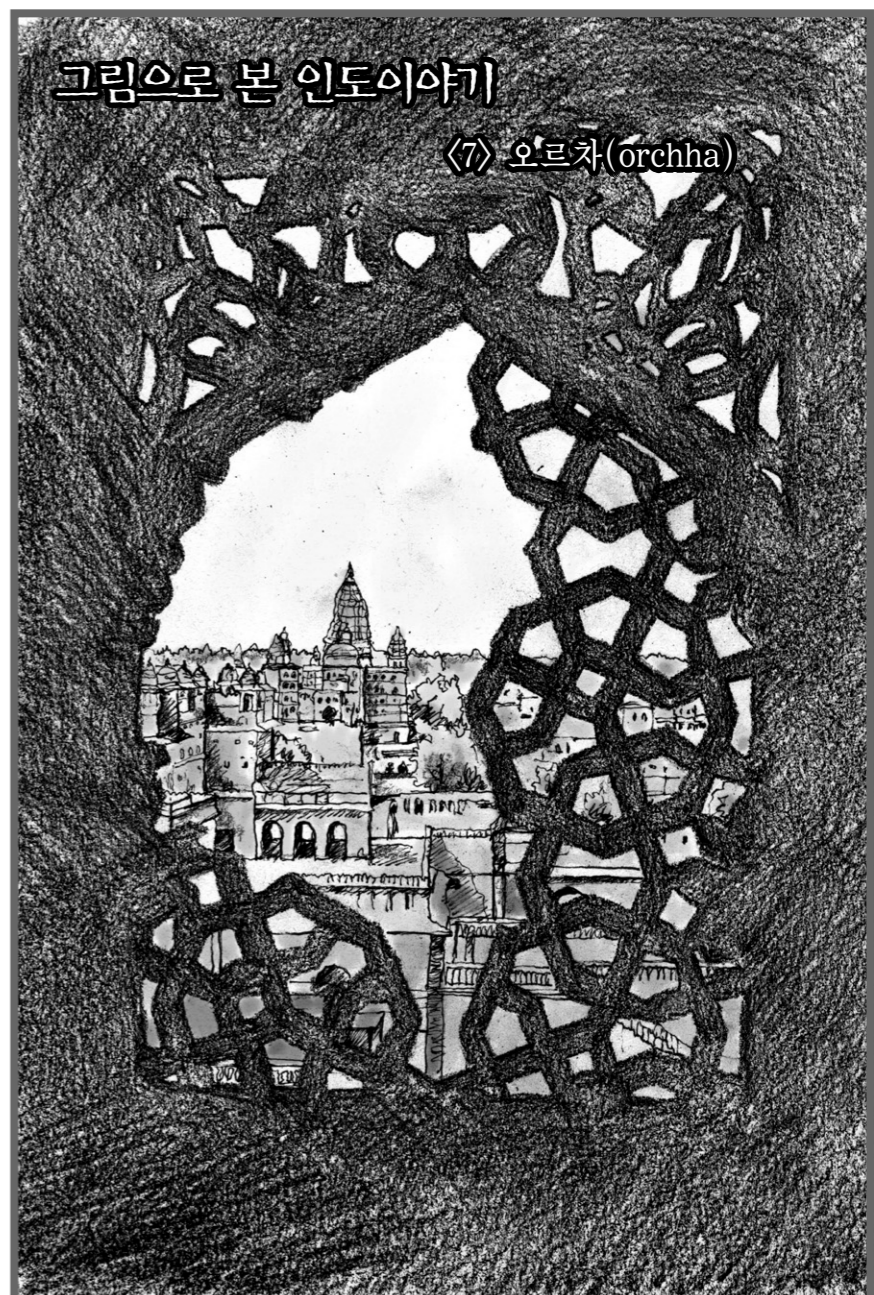
이동 대상 국악 교육 프로그램

게 깨어나야 하는 이웃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문화단체 이외에도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 심지어 백화점 같은 상업공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나 기업의 인재개발 프로그램에서 점차 문화 예술교육적 속성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화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은 그 특성상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2·30대의 젊은 인력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예술 강사제, 기획 전문인력, 매개자, 청년인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

화 예술분야의 기획이나 행정 분야에 비전을 가진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공연기획이나 축제 등 너무 좁은 의미의 문화기획 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문화 예술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공적 가치와 교육적 보람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볼 때다. 젊은 지붕부터 짓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인의 문화 향유력을 높이고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일은 이런 기초적인 분야부터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이 선 철**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크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7》 오르차(Orchha)

오르차(Orchha)……. 숨은 장소라는 뜻의 이곳에서 중세의 향기가 느껴진다.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고요한 이곳에서 그 동안의 지친 심신을 가만히 놓아 둘 수 있었다.

17세기 이전 많은 성과 사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북적대며 오가던 소리들. 그 흔적만이 바람에 섞인 메아리처럼 이곳을 감돌고, 이젠 염소 퐁과 떠나는 새들과 하루 사오십 명 가량의 관광객들이 성과 사원에 잠시 머물러 정적을 깬 뿐이다.

제항기르 마할(jehangir mahal)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성곽에 올라 주변을 둘러 보니 너른 들과 베틀과(betwal) 강줄기 멀리 보이는 또 다른 성곽. 길잡이 없다. 적당한 바람과 햇빛이 어우러진 풍경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이른 저녁 어둠이 온 후 이곳에 찾아오는 것은 누구일까? 삶이 무형질의 것을 남긴다면 이 건물의 정신은 무엇이고 남긴 것은 무엇인가?

건물은 마치 폐허와 같다. 만일 이 곳을 다시 새 단장한다고 조악한 색의 화학 페인트와 벽돌 더미들을 덧발라 놓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본다.



김 상 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지리교육과 96출

**최민희의**  
**살아 숨쉬는 영국 연수기**

누군가 인생에 기회는 세 번 온다고 했다. 나는 그 중 한 번의 기회를 영국에서 잡은 것 같다. 독일에서 한 10주간의 자원봉사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상이었고 운도 좋았다. 사람을 얻었고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3월의 어느 펍(Pub) 투어에서 염소수업을 가진 큰 백인 아저씨를 만났다. 이름은 노버트(Norbert), 30대 후반의 사회복지사 직업을 가진 독일인이었다. 이미 완벽해보이던 영어실력이었는데, 한 달 일정으로 어학연수를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일정의 반이 지난 터였다.

평소 국제자원봉사를 하고 싶던 나는 여러 단체들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그의 직업을 들었을 때 무척 반가웠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아저씨 일하는 데에서는 국제자원봉사자를 선발하나요?"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가을이면 일손이 모자라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잠이었는데, 상사에게 물어볼까"라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첫 걸음을 뒀다. 노버트가 독일로 돌아간 뒤, 모든 업무가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독일 남부의 하이덴하임(Heidenheim) 시의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이덴하임 시는 나를 통한 도시 홍보효과를 기대했다. 나는 그 곳에서 일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다. 보수와 숙소는 제공되지 않았다. 다행히 노버트 친구의 가족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장문의 편지와 기관을 입증하는 각종 신문기사를 한국어로 부쳤다. 성공적이었다.

9월 5일, 독일 행 비행기에 올랐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 ⑦ 독일인 친구 '노버트'

나를 따뜻이 맞아줬다. 선하고 인자한 리차드 아저씨와 엘리자베스 아주머니. 3개월간 독일 생활이 전혀 외롭지 않았던 건 이들 덕분이었다. 함께 집안일을 했고 산책을 했다. 주말이면 여행도 갔다. 그들의 일상에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험했다.

일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의 독일이 있었다. 내 공식 직책은 사회복지사 인턴이었고,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일했다. 이곳에는 주로 동유럽과 구소련 연방에서 이민 온 아이들이 왔다.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차별당하고 있었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쉼터에는 독일아이가 없었다. 그 또한 독일의 현실이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독일어를 약간 하게 되자 거리를 두던 아이들도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다. 무척 기쁘고 감사했다. 그러나 세 달은 금방 지나갔다.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을 때라 아쉬움이 컸다. 친 가족 같은 홈스테이 가족과 헤어지는 것 또한 힘들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하이덴하임에서 몇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다. 홈스테이 가족과 노버트,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내 사진과 작은 기사가 실린 하이덴하임 신문도 함께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해 준 친구 '노버트'에게 언젠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보답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나도 예전에 한 호주인 부부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고"며 "너도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 이제 내가 베풀 차례다.  
최민희 (사과대 신병4)

동국대학교와 함께 하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구청에서 위탁 받아 동국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 가족대인 모듬 만들기 활동
    - 새로 쓰는 우리 가족 이야기(가족책만들기)
    - 3세대 가족 달력 만들기, 참살이 음식만들기 등
  -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 전통 문화 체험 (원연염색, 연날리기, 다도&다식 등)
    - 가족문화축제, 숲 체험
    - 가족친화독서문화 아카데미
    -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문화) 등
  - 코끼리 가족봉사단 활동
    - 지역환경미화, 기관봉사, 나눔 바자회 등
- 가족문제해결 및 역량강화 사업**
  - 부모 및 부부 교육
    - 엄마는 가족행복 코디네이터 (자녀코칭교육-의사소통, 독서교육)
    - 몸과 마음이 자라요(부모 성교육)
    - 아버지교육(자녀돌봄노동참여, 양성평등문화)
    - 예비부모교육 등
  - 자녀 교육, 부모-자녀 교육
    - 몸과 마음이 자라요(자녀성교육)
    - 꾸러기들의 예(禮)Q놀이(생활매너교육)
    - 독서의 바다에 풍덩 빠져요(독서교육)
    - 소비자 경제 교육, 양성평등교육, 직업탐색 등
-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 및 피전
    -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
    - 아이돌보미와 요구 가정 매칭
    - 아이 돌봄 사례 회의
- 가족문제해결 사업**
  - 이혼 전 후 부부 집단 상담
    - 부부가 가꾸는 행복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똑똑 똑똑 내 마음은 공사 중
    - 미술치료 (매주 금요일 오후), 우리가족 마음읽기 등
  - 집단 상담
    -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로 작성)
    - 인터넷 중독, 청소년, 노년기 등 (생애단계별 지원)
  - 개인 및 가족 상담
    - 심리 검사, 전화, 면접, 사이버 상담
- 지역 특성화 사업**

<다른 지역보다 노인 비율이 높은 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찾아가는 노년기 정서 지원 통합 프로그램
    -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Silver Life
    - 건강한 Silver Life : 노년기 식생활 영양 교육
    - 즐거운 Silver Life : 정서함양활동, 체험활동, 신체단련활동
  - 행복한 Silver Life : 이야기 치료
  - 노년기 부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인고 부부 프로젝트'
  - 부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 노년기 재무설계
  - 부부 전화 여가문화 등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여성 연극놀이 (꽃)
  - 미녀들의 수다 -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 한국어 교실 - 한글 및 한국정서교육

사무실 : 02)2260-3898    아이돌보미 : 02)2279-3890  
상담실 : 02)2279-3896    동국대학교 학원관 304호    <http://sujung.familynet.or.kr>

## 2008년 여름학기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제6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모집 요강

전공으로 입학 면접 시 가산점 부여

**■ 교과목**

| 영역         | 과목            | 시수  | 영역 |
|------------|---------------|-----|----|
| 한국어학       | 국어학 개론        | 3   | 이론 |
|            | 한국어사          | 3   |    |
|            | 한국어 음운론       | 6   |    |
|            | 한국어 문법론       | 6   |    |
|            | 한국어 어휘론       | 3   |    |
|            | 한국어 의미론       | 3   |    |
| 언어학        | 한국어 어문규범      | 6   | 이론 |
|            | 음운 언어학        | 3   |    |
|            | 외국어 습득론       | 3   |    |
|            | 사회 언어학        | 3   |    |
|            | 대조 언어학        | 3   |    |
|            | 한국어교육론        | 3   |    |
| 한국어교육학     | 한국어 교재론       | 3   | 이론 |
|            | 한국어 교수-학습 설계  | 5   |    |
|            |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 3   |    |
|            | 한국어 듣기 교수법    | 3   |    |
|            | 한국어 읽기 교수법    | 3   |    |
|            | 한국어 쓰기 교수법    | 3   |    |
|            | 한국어 발음 교수법    | 3   |    |
|            | 한국어 문법 교수법    | 3   |    |
|            | 한국어 어휘 교수법    | 3   |    |
|            | 한국어 문화 교육론    | 3   |    |
| 한국어 교육 평가론 | 3             |     |    |
| 한국 문화      | 한국어 교사론       | 3   | 이론 |
|            | 한국어교원 양성      | 3   |    |
|            | 한국어 교육 특강     | 2   |    |
|            | 한국어교육 세미나     | 2   |    |
|            | 한국 역사의 이해     | 3   |    |
|            | 한국 현대 문화 비평   | 3   |    |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 고전 문학의 이해  | 3   | 실습 |
|            |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 3   |    |
|            | 수업 참관 및 모의 수업 | 20  |    |
|            | 합 계           | 122 |    |

\* 시간표는 개강일에 배포됩니다.

**■ 원서 접수 : 2008. 6.16 ~ 6.18**  
**■ 입학자 발표 : 2008. 6.19(목)**(인터넷 및 개별통지)  
**■ 등록 기간 : 2008. 6.20(금) ~ 6.24(화)**  
**■ 수업 기간 : 2008. 7.1(화) ~ 7.30(수)**  
월, 화, 수, 목, 금 09:30 - 17:00

**■ 과정개요**  
본 과정은 늘어나는 한국어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의 이론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국어 기본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등록 방법**  
○ 전형료: 3만원(원서 접수 시)  
○ 등록금: 100만원(교재비 포함)  
○ 등록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장학금: 20% (현직 한국어 교사: 등록금 20% 할인(증명서 제출시))  
○ 장학금: 40%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등록금 40% 할인(재학 증명서 제출))  
○ 입학금: 140-007-491785(한국어교원양성과정)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klt@dongguk.edu  
- 방문: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해화관 1층)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담당자 전화(02) 2260-3472

**■ 교육과정**  
○ 총 122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최소 수업 시간 120시간)  
○ 1주 5일(월-금), 1일 6시간(09:30-17:00) (점심시간 12:30-2:00)  
○ 수업 내용(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교과과정)  
- 한국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 (30시간)  
- 언어의 일반 원리 및 응용언어학에 관한 지식 (12시간)

**■ 등록 자격**  
○ 전공대졸 이상자 또는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전·현직자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 전형 절차:** 서류 심사 (정원 초과 시 면접 실시)

**■ 입학 정원:** 50명

**■ 제출 서류**  
○ 본인 소정 지원서(지원서를 낼 때 전형료를 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 재직(경력) 증명서(해당자)

**■ 환불**  
○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개강 전 : 등록금 전액 환불  
○ 개강 1주일 이내 : 등록금 70% 환불  
○ 개강 1주일 후 : 환불 불가

\* 본 과정 이수자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성적 우수자에게 한국어교육센터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 수여  
\* 본원 강사 채용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및 해외 모집 광고 지속적 제공  
\* 본 과정 이수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대그의 난

####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촛불집회 변질돼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정말 평화의 표상이었던 집회가 경찰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정치계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배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몸서리 칠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무력충돌? 조중동의 호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치고 전경들은 방패로 마구 내리찍습니다. 시민, 비무장입니다. 전경, 하이바에 방패에 끈봉에 완전무장입니다. 무력충돌이 아니라 무력진압이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까지 약 18차례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집회를 열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시민들의 요구를 들었나요? 촛불문화제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있으나, 정부에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하는 정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건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가는데, 정부들은 나 몰라라 - 대한민국은 어디로... △동국인은 어디 있나? △강릉 고딩소녀의 '아름다운 강산' 열창 △강기갑 응 단상에 오르자 "강달프" 연호! △집회는 뜨거운데 동약은 냉랭해 △긴 밤...지새우고...풀잎...마다... △함께 하자 동국인들이여!

### 달하나 천강에

## 젊은 그대, 다양한 꽃이 피는 세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유지나  
영성대학원  
영화영상학과 교수

세월이 하수상하네요. 돌이켜보면 압축발전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사회가 언제 조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심대 소녀들이 중심이 되어 청계광장과 광화문 등지를 돌면서 '미친소, 너나 먹어'란 구호를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지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들이 불순한 세력의 조종이라고 받은 양 음모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잡 좀 자자', '밥 좀 먹자'라는 절실한 생활문제를 거론합니다.

새정권이 연이어 제시한 영어몰입교육,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같은 경쟁력(?) 향상을 빙자하며 다양성을 무시한 교육 현실에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투표권이 없다고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라며, "요즘 어른들은 세상을 몰라요"라며 기성세대를 질타합니다. 심지어 과거 저항권을 행사하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뭐 하기에 안 보이느냐?"고 호소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보여줍니다.

경쟁력으로 인간을 줄세우고 판단하며, '부자되세요' 같은 만인간적인 목표를 축

원인양 내거는 이 사회에서 대학은 취업 준비학원이 되느라 삶의 이상주의와 낭만적 열정을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졸업과 실업이 동일시되고, 88만원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내모는 사회에서 대학생은 취업 경쟁력 향상에 주눅이 들어 버린 것이지요. 사회문제나 한미투자협정, 정치현실에 참여할 시간과 에너지를 취업준비에 쏟아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법합니다. 이른바 돈버는 인간, '호모 이코노미스(homo economics)' 되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착잡한 생각을 하며 후문 쪽 언덕길을 걸어내려 가는데 현수막이 확 눈길을 끄네요. '동국대학? 동국취업학원!' 이란 문구입니다. '지금 이 곳이 대학인가? 대학이란 간판이 이전 학원인걸 어찌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긴 것이겠지요. 학생 친구들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촛불이 켜집니다.

학술활동을 알리는 게시물보다 토플, 토의 광고가 더 많이 내걸린 교정. 도서관 옆이나 동국관 앞에서 커다란 엠프를 설치한 채 짧은 치마 입은 도우미 여자들이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로 학생들이 줄 세우는 교정. 그 속에서 젊은 그대들이 자신의 꽃을 피우며 자유롭게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의 본령인 것을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대립적이 아니라, 이상이야말로 우리의 다양성을 압박하는 부당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씨앗인 것을 남산의 신록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 보리소

## 결계와 포살 그리고 화합

얼마 전 무자녀 하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전국 100여 곳의 선원에서 22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선 정진을 시작하였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의 두 번 안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하안거 결계를 기하여 결계(simabandha, 結界)와 포살(posadha, 波薩)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 소속 모든 스님들은 거주 사찰의 해당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고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하안거 결계란 승가 구성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스님들이 해당 결계 내에서 승가의 구성원이 될 때 약속한 학처(學處) 즉 계율을 확인하는 설계(說戒)가 포살이다. 그래서 이번 결계와 포살의 시행은 승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유

지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살은 또한 승가대중의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다. 승가란 화합중을 의미하는데 울장에서는 화합이 동일계 내에서 포살 설계 등을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대중들이 비록 다투거나 논쟁과 주장으로 얼룩져도 동일계에서 포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면, 화평은 언젠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졌던 결계 전통이 현재 조계종단에서 총림, 선원, 강원, 율원, 등에 존속되고 있기는 하나, 소승승가로 구성된 사찰이나 포교당과 그 외 개별 수행처를 주축로 하는 구성원들도 교구본사 중심으로 결계에 의한 여법한 대중중으로 포살의 의무를 지키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

단 구성원 전체가 대중 공의에 의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갈마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한 것이다. 본래 승가의 회의는 한사람만 빠져도 별중으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여유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결계법의 시행은 승가의 토대 즉 화합의 공의를 출생시키는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요즘은 교내·외에서 보이는 깊은 갈등과 투쟁의 모습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출가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결계법의 장점이 재가보살, 더 나아가 사회일반에도 확산되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전 해 주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독자 사진첩



#### 소리를 담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열광한다. 하지만 소리를 녹음하는 마이크로는 아니다. 영상과 음성의 중요성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김민규(예술대 영화영상4)

### 동약은 시급벽적

#### 말뿐인 '독도는 우리 땅'

한국과 일본은 독도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일본에서 역사교과서나 공민, 지리교과서에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선언했을 때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믿고 교육조차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선 개국 당시, 왜적에 대한 공도정책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상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켰다. 그것도 300년 동안 독도와 울릉도는 점차 조선인들에게 잊혀갔다. 그 사이 일본인들이 무단도가 되어가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행위와 상주하며, 자신의 땅처럼 이용하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관심의 부족, 그리

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자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한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편입된 독도를 탈라고 하는 일본에게서 지켜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가?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현재 언론 매체와 인터넷 클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 그러한 모임의 활동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그것을 주위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독도를 지키

는 활동인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독도 아카데미'가 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단체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학생들을 통하여 전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를 가진 모임이다. 이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누구나가 안용복장군처럼 독도를 사랑한다면, 일본의 독도점령의 야욕과 민족적 자괴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민경춘(공과대 전자4)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교내 상업홍보, 사용내역도 집중 취재하길

우리학교의 로스쿨 유치 실패는 졸업생 및 재학생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후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알기 위해 우리 학교는 탈락한 4개의 학교와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로스쿨 유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난 동대신문의 가장 큰 기사로 소개되었다. 우리 학교의 소송 진행 과정·내용 그리고 회의록의 일부가 빠졌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우리 학교의 대응책이 기사에 실렸다. 회의록의 일부가 빠졌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기에 로스쿨 유치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동대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의 결정대로 회의록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로스쿨 유치 과정이 정당했다는 의혹을 밝히고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로스쿨 재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구성원들은 우리 학교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5월마다 대학가에서는 축제를 하고 학내에 기업체가 와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2면의 '학내상업홍보, 절

저한 관리 필요'의 기사는 대학생으로서 공감가는 기사였다. 사실, 막연하게 상업브랜드 홍보부스에 가서 이벤트에 참가하고 상품을 받는 것에 그쳤지만 위의 기사를 통해 학내에 기업체들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홍보를 하는 대가로 협찬 비용을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 학생에게 지불한다면 그 돈의 사용내역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동대신문에서는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하길 바란다.

정수인  
(사과대 행정3·매체비평연구회)

## 법학 적성시험 대비 계절학기 강좌개설 안내

#### 1. 개설강좌(총 4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LEET 등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로,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회원, 동국대 논리학개론, 일반논리학, 과학적사고와 철학적사고 등 강의, 경기대 비판적글쓰기,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검수위원, 논술지도사 재직위원 등)

나.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Special Lecture for Mathematical & Logical Puzzle) - LEET 등 추리논증영역 : 윤정익교수(서울대 항공우주학과 박사, 수리논증전문가 등)

다. 비판적 사고 연습(Critical Thinking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 이진남교수(미국 웨스민대 박사, 동덕여대 교수,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부회장 등)

라.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 홍성철교수(독일 카셀대 박사, 경기대 비판적글쓰기, 동국대 논리학개론, 비판이란 강의 등)

#### 2. 개설기간 : 2008.06.23(월) - 07.16(수) / 여름계절학기 기간

####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간

#### 4. 수강지역 : 제한 없음

#### 5. 수강료 : 과목당 25만원

#### 6. 수업시간

| 구분   | 오후1                          | 오후2                          | 오후3                           |
|------|------------------------------|------------------------------|-------------------------------|
| 수업시간 | 13:00 - 14:50<br>(5 - 6.5교시) | 15:00 - 16:50<br>(7 - 8.5교시) | 17:00 - 18:50<br>(9 - 10.5교시) |
| 해당강좌 | 논증적 사고특강                     |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                 | 비판적 사고 연습                     |
| 담당교수 | 홍성훈 교수                       | 윤정익 교수                       | 이진남교수<br>홍성철 교수               |

#### 7. 강좌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5명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

#### 8. 추가 접수 : 수강료 납부 이후부터는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6월 18일(수)까지 추가접수함

#### 9. 수강신청 방법 : 재학생 및 일반인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문의 (02-2260-3756)

#### 10. 기타사항

가. 이수구분 : 전공 또는 자유선택  
나.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담당 김홍호 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바랍니다.

## 2008 하계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2006, 2007학년도에 이어 2008학년도 하계 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캠프명 : 2008년 하계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2. 목적 :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법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의 네트워킹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3. 모집대상 :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 선발인원의 2배수까지 선착순 접수
4. 모집기간 : 2008. 5. 30(금) ~ 6. 10(화)
5.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6. 제출서류 : HRDP 취업캠프 참가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취업캠프 자기소개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선발자 명단 공고 : 2008. 6. 13(금) 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10. 캠프(교육) 내용 :
  - 가. 교육형태 : 합숙교육(3박4일)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 구분     | 회수  | 일 자                       | 인원   | 비고 |
|--------|-----|---------------------------|------|----|
| 하계방학기간 | 9기  | 2008. 6. 24(화) - 6. 27(금) | 54명  |    |
|        | 10기 | 2008. 7. 1(화) - 7. 4(금)   | 54명  |    |
|        | 11기 | 2008. 7. 8(화) - 7. 11(금)  | 54명  |    |
| 계      |     |                           | 162명 |    |

다. 교육장소 : 청호인재개발원(경기도 화성 소재)  
라. 교육주관 : 잡코리아  
마. 일일 주요 프로그램

| 구분  | 교육명            | 주요 교육내용   |
|-----|----------------|---|
| 1일차 | 개인역량강화         |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간관계 증진 - 커뮤니케이션 기법<br>-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리젠테이션 - 성공을 이끌어내는 멘토링 스킬      |
| 2일차 | 자기관리 및 리더십 강화  | - 비전 설정 및 목표수립 - 효과적인 시간관리 및 목표관리 기법<br>-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 팀빌딩 및 팀역 강화의 시간           |
| 3일차 | 실전 취업스킬 향상(I)  | - 경력개발을 위한 직무 및 커리어 탐색 - 구체적인 취업전략 수립(취업 로드맵)<br>- 인사지원서 작성법 및 컨설팅(클리어) - 성공면접 비법   |
| 4일차 | 실전 취업스킬 향상(II) | - 유행병 면접 Role Play 1 (면접의 이해)<br>- 유행병 면접 Role Play 2 (면접 시뮬레이션) -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

11.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니폼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문의전화 : 2260-3058, 3055, 3056)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문과대학

고유가 시대,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코캠퍼스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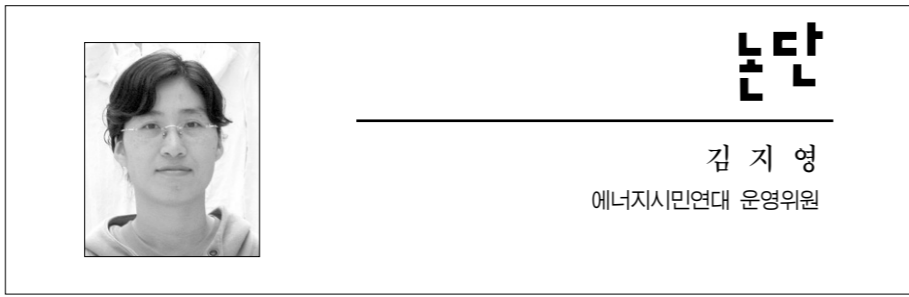
요즘 학계와 언론을 통해 지구적이고도 지역적인 이슈를 접하고 있다. 바로 기후 변화에 따른 사건·사고들과 석유고갈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고 에너지절약적인 구조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석유고갈과 맞물려 유가 상승은 경제생활 곳곳을 치며 전기, 수도요금,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은 거대한 소비 주체

대학은 소비사회의 축소판이다. 대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문제와 에너지 낭비, 건물 신·증축에 따른 녹지훼손 등 환경 문제가 산재해 있다. 매년 발표하는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많이 내는 순위 20위 안에 대학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 사회도 소비의 산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작성한 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기관에 5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23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주체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

이제 대학에서도 환경친화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외국 대학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활동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감노력에 참여하여 캠퍼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녹색 캠퍼스', '지속가능한 캠퍼스' 등을 표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미국에서는 2007년 152개 대학 총장들이 '미국 대학총장 기후변화 위



김지영 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

원회'를 구성, 대학 캠퍼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녹색 캠퍼스' 정책

현재 498개의 미국 대학들은 대학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최대한 줄이고, 감축이 어려운 부분은 감축실적을 구매하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대학은 2000년부터 '녹색 캠퍼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학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다. '녹색캠퍼스 이니셔티브'는 직원 한명당 7만 달러의 기금으로 시작되었지만, 2006년에는 운영기금이 1백1십만 달러, 14명의 직원과 40명의 파르타임 학생으로 늘어났다. '녹색캠퍼스 이니셔티브'는 매년 8만 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온실가스를 27,180톤 이상 저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환경 가치를 고려하는 에코캠퍼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개발 위주의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대

학들이 녹지 공간인 산이나 구릉지를 개간하여 대학건물 등을 건설하여 왔다. 결국 흡수원인 녹지 공간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원을 건설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 온 것이다. 그동안 국내대학의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는 조선대학교, 상지대학교 등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한 사례도 있고, 국민대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에코캠퍼스 활동을 열어나가는 계기도 마련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초점으로 에코 캠퍼스를 구상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기후변화와 대학이라는 명제를 가장 상위로 놓았을 때 에코캠퍼스 논의는 기존과 달리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에코캠퍼스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에코캠퍼스 활동은 무엇인가?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구조와 생활양식 등 대학사회 전반을, 환경평가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대학 사회 내에 지속가능한 캠퍼스문화를 정착시켜가기 위한 기초 활동이다. 이 활동은 쓰레기, 물, 에너지, 음식물, 구매정책, 수송, 캠퍼스 건물 설계와 확장, 연구 활동 등 전반

을 포함한다. 이 과정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기후변화의 대명제를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수치 측정과 체계적인 수행체계 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에코캠퍼스 구축 위한 과제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코캠퍼스 만들기를 시작할 때이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교직원·학생 모두 참여하는 에코캠퍼스 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캠퍼스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에너지, 물, 폐기물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측정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난방부문의 효율 개선, 대학 내 바이오연료 사용,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넷째, 교과목에서도 에코캠퍼스 활동을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폭을 넓히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으로 마련한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정책개발의 중심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위주의 경제정책 흐름에 맞물려 진행해 왔다. 대학 내부의 풍토를 에코캠퍼스 활동으로 바꿔간다면 이러한 난국들을 헤쳐 나가는데 희망의 산실이 될 것이다. 나무부터 추장하고 실천하는 가르침을 대학에서부터 시작해 사회에 녹색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란다.

메아리

지금은 엘로우 카드 이지만

▲ 1905년 1월 초 프리토프 공장 노동자들이 동료 4명의 해고문제로 파업을 일으키자 이 같은 문제가 시 전체에 퍼지게 됐다. '베제르부르크 러시아 공장 노동자의 모임'이라는 어용조합을 조직한 신부(神父)가본은 노동자들의 갖가지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작성해 겨울공전을 향해 청원행진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1월 22일 일요일 이른 아침 시내 각 지구의 노동자들은 성상(聖像)과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초상을 들고 얼음공전을 향해 행진했다. 경찰과 군대가 이 평화적 행진에 대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곧 행진이 진행됐던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이후로 그날을 '피의 일요일'이라고 부르게 됐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촛불 집회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도로저거까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대포를 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37명의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한 폭행이 적나라하게 하게 드러나는 사진들이 공개돼 더욱 시민들을 뜨겁게 하고 있다.

▲ 지난 달 21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도 '무조건 강경대응'이라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아닌, 10대, 20대의 학생들이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강경진압'으로 해결하려는 데 급급해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시민 아니,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 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피의 일요일' 사건은 러시아황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러시아혁명의 발단이 됐다.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으라"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중반대로 추락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집회진압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여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연행과 처벌로만은 스스로 나선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김나리 대학부장 vki26@dongguk.edu

사설

소통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해당부서의 기조 설명이 끝난 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지만, 학생들과 학교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각자의 입장만을 밝힌 채 3시간에 걸친 설명회가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학교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발표한 이후,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학과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논리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평가지표가 공정치 않으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대학이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우리대학을 일컬어 흔히 '100년의 역사를 가진 3대 사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무색케 한다. 200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종합 27위였다. 지난해에는 공동 28위였다. 적어도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100년 역사의 3대 사학이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너무 많다.

이 같은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은 아닌가.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의 틀에 얽매어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논란을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무한반복의 논쟁만이 계속될 뿐이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대학이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발표된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이 최선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차선의 고육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도 해당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최대한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수술 받는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치료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동국대평 등극 노영

이주현 niitake@dongguk.edu

앞 열리는 문 너머에서는...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운재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0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6. 9일~6. 20일)중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1. 중앙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Table with 3 columns: 건물, 구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Rows include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만해관).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부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학생에게 옥실터 독서실 이용

가. 이용 시간: (1) 월요일~토요일: 06:00~22:00 (2) 일요일: 09:30~18:00
나. 이용 좌석: 100석(남, 여 각 50석)
다. 이용 대상: 재학생 한정하여 선착순 (학생증 지참)
라. 비용: 무료 (도서관에서 부담)
마. 위치: 체육관과 엠버서더 호텔 뒤편 사이

3. 강의실 대관 및 이용안내

가. 목적: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1) 강의실 유형: 전일(07:00~22:00) / 오전(07:00~13:00)
(2) 대관된 강의실: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1) 동국대학교 시설대관 시스템에서 가능
(2)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 → 학사센터 → 시설대관신청 → 빈강의실 찾기 → 조회(건물, 강의실별)
(3)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4)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도서관

2008년 졸업Pass제 대체강좌 공고

Table with 4 columns: 개설취지 및 목적, 강좌구성, 수강자격 및 조건, Pass기준, 수강신청, 문의사항. Contains details about graduation Pass system and alternative courses.

외국어교육센터

열공국수 드시고 힘내세요!!

생협에서는 시험기간에 아침(찬치국수)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일시: 6.9(월) ~ 6.11(수) 3일간
장소: 상록원 2층 학생식당
시간: 20:30 ~ 21:30(1시간)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언론정보대학원 2008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야간)

- 모집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 전공, 인쇄화상 전공)
모집인원: 00명
원서교부 및 접수: 2008. 6. 11(수) ~ 6. 20(금)
전형일: 개별 통지
문의전화: 02-2260-3733-3735(학사운영실), FAX 02-2260-3736
기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ci.dongguk.edu) 참조
특전: - 공무원, 언론계,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 각종 장학특전.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박사학위 과정에 응시할 수 있음.

2008 베이징 올림픽 특집

# 학생기자, 뜨거운 올림픽의 현장으로

## 일반 학생기자도 선발 ... 기존언론과 차별화 할 것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5월 26일 진행된 KBS 김현철 프로듀서의 강의 모습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중국문화에서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숫자인 8이 다섯 번이나 중복된다. 경기는 24일까지 이어지는데, 총 28종의 경기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뜨거운 현장 속에, 동국인이 뛰어들게 된다. 바로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올림픽 취재단'이다.

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징에 올림픽 취재단을 파견한다.

### 실제 현장에 투입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은 8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파견된다. 취재단은 기성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북경 올림픽의 이야기들을 대학생의 시각으로 풀어내 학내의 동국가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또한 기존 언론들과의 접촉으로 실제 올림픽 취재 현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등 취재단의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은 지난날 4일 일반 학생 취재단 7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6일과 27일에는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실무 특강도 있었다. KBS 스포츠부 배재성 부장, 중앙일보 국제부 유광종 차장 등 총 6명의 강연자가 취재실무와 중국문화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에 대해 류서현(영문3) 양은 "올림픽을 직접 겪으신 선배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취재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강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기가 끝난 후에는 한 번 더 실무 위

크샤이 예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 중국 뒷골목 탐방, 올림픽에서 우리 동문의 활약상, 달라진 중국의 모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취재를 계획하게 된다. 각각 주제가 확정되면 일정을 조정한다.

### 북경동문회 큰 도움돼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25명이라는 대규모 학생기자단을 파견하는 이번 행사는 북경 동문회의 협조가 있어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 북경동문회는 후배들이 취재를 온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기로 결정 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숙소문제다. 올림픽으로 최대 열배까지 치솟는 숙소 값을 동문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로 대체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북경동문회 이원희 총무는 "학교에서 준비한 아주 좋은 교류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며 "해외에 있는 동문들의 학교사랑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올림픽 취재단의 활동 모습과 기사는 동국인 사이트에서 모두 게시 될 예정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윤재웅 부단장 인터뷰

## "학생 · 학교 · 동문 모두 감동을 배우고 오게 될 것"

이번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은 특별한 형태의 해외 파견이다.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올림픽 파견인 만큼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파견단의 가장 중심에서 기자단을 이끄는 올림픽 취재단 윤재웅(국어교육) 부단장에게 이번 행사에 대해 들어봤다.

- 처음 시도되는 행사다. 행사의 취지는 =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취재 인턴십, 국제화의 현장 경험, 자원봉사, 도전과 모험정신 함양 등이 경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에 졸업한 동문선배들과의 유대관계도 쌓을 수 있다는게 중요하다. 즉 올림픽 현장의 참가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 동문간의 유대감 형성과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동문 홈스테이'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을 준비하며 어려움 점은 = 북경 동문회 측의 도움을 많이 받

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파견에 대해 참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 힘들었다. 자비를 들이더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지만,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아쉽다.

- 북경 동문회 측의 반응은 어떠한지. = 행사의 취지를 듣고는 홈스테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후배들에게 무언가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기뻐했다. 또, 후배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동문의 밤' 등의 행사로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파견되는 학생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목적,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 관광이라는 생각은 금물. 일차적으로 취재단으로 파견되는 그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이번 경험이 앞으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해야 한다. 때문



에 학생들을 위한 수차례의 특강 준비도 되어 있다. 하지만 특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어느 만큼 이냐다. 일단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취재 아이디어를 철저히 기획하는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일반 학생 취재기자에 선발된 이승주 학생 인터뷰

## "다양한 준비로 톡톡 튀는 콘텐츠 만들어 낼 터"



'나를 키운 것은 8월의 바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해 여름방학마다 해외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승주(화학4) 양이 이번에는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 2008년 8월 뜨거운 여름의 바람과 함께 스포츠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베이징에서 동국인을 대표해 재학생 취재 기자로 활동하게 될 그녀를 만났다.

- 동국 미디어 센터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고3 때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렸다. 그러나 대일 준비로 인해 월드컵의 열기와 재미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 항상 아쉬웠다. 동대신문을 보다가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모집 광고를 보고 '꼭 올림픽의 열기를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됐다.

- 취재단에 선발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 심사위원이 '이승주'를 제일 처음 마주하는 지원서부터 공을 들였다. 특히 서정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지원동기를 썼다. 시를 인용하여 베이징 올림픽에 가고 싶은 열망을 나타낸 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것 같다. 또한 면접관에게 보여줄 사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점을 두고 취재하고 싶은 분야는? = 경기의 중계보다는 책, 인터넷 등에서 동국인을 대표해 재학생 취재 기자로 활동하게 될 그녀를 만났다.

음식문화나 화장실문화와 같은 이색적인 중국문화도 눈여겨 볼 예정이다.

- 현재 취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survival 중국어'라고 직접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중국어 회화를 공부할 계획이다. 멕시코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다. 스페인어를 하더라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배워 혼자 음식을 사먹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현지에서 부딪쳐가며 중국어를 배우면 실력이 늘 것 같다.
- 2008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으로 선발된 기분을 표현하면? = '두근거림'이라는 네자로 표현하고 싶다. 처음엔 '공짜로 중국을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원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올림픽 취재단 실무 특강'에 참석하고 나니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두근거린다. '최선을 즐기는 자는 막을게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각오로 잘 다녀오겠다.

(신)  
leeshin@dongguk.edu

### 베이징올림픽, 직접 준비하기

베이징 올림픽이 6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학생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현장에서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 숙박=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이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호텔 예약증 등이 없으면 아예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5성급 호텔의 경우 평소 요금의 10배가 넘고 3,4성급 호텔도 몇달아 요금이 인상돼 숙박에 약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경기가 분산 개최되는 진황도나 천진 등에서 묵고 베이징으로 이동(2-3시간)할 수도 있다.

- ▲ 교통편=선박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천진이나 진황도행 표를 예약하면 된다. 가장 싼 것이 왕복 21만 8천원가량이다. 항공편은 미리 예약해야 하고, 국적기는 편리한 대신 가격이 40-50만원으로 비싸고, 중국 민항기를 이용하면 3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 비자신청=비자는 올림픽 기간 중 복수비자는 허용되지 않고 30일짜리 단수비자만 허용될 것이라고 한다.
- ▲ 자원봉사=중국어가 가능하면 대한체육회 베이징올림픽 연락사무소(http://blog.daum.net/beijing2008)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에 지원해 볼 수도 있다. 통역, 웹관리, 운전, 귀빈영접, 응원 및 경기장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